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통업체의 '키즈 마케팅'이 한창이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는 어린이들(왼쪽), 11번가 '해피칠드런스데이'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는 어린이들(가운데), 경방 타임스퀘어 내 키즈카페 '딸기가 좋아' 내부 전경.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교감... '키즈 마케팅'의 재발견

대형마트·소형몰 어린이날 이벤트 돌입
놀이·체험·문화·교육 복합 키즈존 인기
자녀와 함께하는 추억만들기 체험 선사

‘어린이날 잡아라!’
어린이날을 앞둔 유통업체의 특별 미션이다. 일명 ‘키즈 마케팅’. ‘어린이날 프로모션’ 및 복합쇼핑몰 내 ‘키즈존’ 등 다채로운 전개가 특징이다.

● **예년보다 빠른 ‘어린이날 프로모션’**
‘어린이날 프로모션’의 경우,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판촉 활동에 돌입하는 등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게 특징이다. 5월5일 어린이날이 황금연휴 중간에 끼여있는 만큼,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을 감안한 것이 관전포인트.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가 나섰다. 롯데마트가 27일까지 진행하는 ‘어린이날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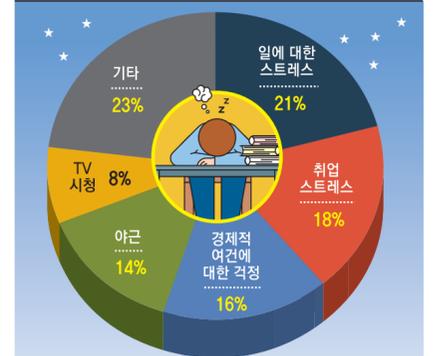
구 대축제’가 대표적. 인기 상품인 ‘다이너코어2 울트라 디세이버 3종’을 9만4900원에, ‘베이블레이드 듀얼스핀 스타디움 DX 세트’를 5만9900원에, ‘터닝메카 W 트럼 캐리어 스페셜 세트’를 7만9000원에 내놨다. 또 완구숍 ‘토이저러스’를 활용해 장난감 할인·단독상품 판매 등 풍성한 이벤트도 연다.
이마트 역시 최근 전국 매장에서 인기 레고 시리즈인 ‘스타워즈’와 ‘프렌즈’ 시리즈를 반값에 판매하는 파격 시도를 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호 이마트 완구팀장은 “완구 대목인 어린이날이 황금연휴 가운데 끼인 탓에 사전 수요가 증가했다”며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어린이날 영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쇼핑몰도 예외가 아니다. 11번가가 진행 중인 어린이날 기획전 ‘해피칠드런스데이’가 대표적으로, ‘공룡 번신 로봇’부터 새롭게 뜨고 있는 ‘스마트 코딩로봇’까지 30여 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인터파크도 완구 상품을 대상으

로 특가 기획전을 열고 최대 25%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한정 수량에 한해 매일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중복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게 특징. 또 쿠팡 역시 4만여 개 인기 완구를 최대 15% 추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 **복합쇼핑몰 내 ‘키즈존’ 각광**
‘키즈 마케팅’과 함께 복합쇼핑몰 내 ‘키즈존’도 각광받고 있다. 경방 타임스퀘어 내 어린이 직업 체험관 ‘키즈엔키즈’가 대표적. 스포츠·방송·패션 등 총 6개 스테이션이 테마별로 구성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키즈카페 ‘딸기가 좋아’도 인기다. 인기 캐릭터 ‘딸기’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담은 캐릭터 테마파크로, 놀이·체험·문화·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키즈 공간이라는 게 회사 측 소개다.
롯데몰은 온평에 위치한 ‘롯데월드키즈파크’도 마찬가지. 6월18일까지 열리는 봄시즌 페스티벌 ‘판타스틱키즈월드’를 통해 참여형 공연과 방송국 미션수행 등 어린이

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처럼 유통업체가 ‘키즈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은 대중들의 삶이 스스로 설정한 가치를 향해 사는 것으로 변모한 것에 기인한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추억의 가치 또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키즈 관련 콘텐츠는 자녀와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인데, 이는 최근 육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고객들과 공감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도 깔려있다.
윤강열 경방 타임스퀘어 영업감독팀 차장은 “최근 미세먼지뿐 아니라 자녀의 새학기 증후군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키즈 관련 콘텐츠들이 주목 받고 있다”며 “단순한 쇼핑 공간의 개념을 넘어 자녀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체험 장소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데이터로 보는 경제 성인남녀 70% “수면 부족”...이유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수면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으로 조사됐으며, 희망 수면시간은 8시간이었다. ‘잠이 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79%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성인남녀도 65%나 됐다.



KB국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캠퍼스 스타가 나선다.’ KB국민은행이 최근 일산연수원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KB캠퍼스스타’ 11기 발대식(사진)을 열었다. ‘KB캠퍼스스타’는 KB국민은행 브랜드와 상품·서비스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등을 통해 KB국민은행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대학생 홍보대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타스타그램’ 회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최종 합격한 75명의 홍보대사들은 오는 11월까지 KB국민은행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우수 활동자에게는 KB국민은행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장학금 지급, 해외금융탐방 프로그램 등 미래 금융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신한은행, 아름다운 은퇴이야기 공모 이벤트
신한은행이 6월 말까지 ‘아름다운 은퇴이야기 공모 이벤트’를 연다. 주제는 ▲은퇴생활(건강관리·대인관계·취미·봉사활동) ▲재취업 및 창업 등 총 3가지로, 신한 ‘미래설계포유’ 앱에서 이벤트 참여 신청 후 커뮤니티 코너 은퇴이야기에 본인의 은퇴 노하우를 등록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7월14일 총 33명의 수상자를 발표 예정이며, 여행상품권 200만원(1명)·갤럭시S8(2명)·백화점상품권 10만원(30명) 등의 선물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측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로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은퇴자들의 삶의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고객들의 요청으로 준비했다”며 “다른 고객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은퇴 생활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롯데백화점, 로봇 쇼핑도우미 ‘엘봇’ 도입
롯데백화점은 25일부터 서울 소공동 본점에 로봇 쇼핑도우미 ‘엘봇’(사진)을 도입한다. 엘봇은 말하고 움직이는 기능으로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명 식품(F&B) 매장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안내하는 것은 물론 오픈채널 서비스인 3D 가상 피팅 서비스와 픽업데스크의 이용 방법도 소개해준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한 상담원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올해 하반기 내로 3D 가상 피팅 서비스를 통해 입어본 옷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10초에 5벌 이상의 옷을 입어보고 모바일로 상품을 주문한



뒤 픽업데스크에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향후 고객과 대화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기반의 대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GS25 드라이브 쓰루 창원불산모점 오픈
다양한 콘셉트 편의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드라이브 쓰루 점포도 등장했다. GS리테일은 드라이브 쓰루 점포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이동이 많은 경남 창원시의 GS25 창원불산모점(사진)이다. 창원에서 부산 방면으로 일평균 3만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가는 창원터널 초입에 위치해 있다. 운전자들이 잠시 쉬면서 피로를 풀고, 운전 집중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마련했다. 또 차량유도선을 따라 전용 카운터 앞으로 이동해 벨을 누른 뒤 상품을 요청하면 근무자가 바로 전달해주고 계산까지 완료할 수 있



다. 드라이브 쓰루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원두커피 카메25, 얼음컵음료, 생수 등으로 한정해 빠른 계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운전할수록 ‘연료절감되는 블랙박스’ 직접 체험해보세요!

국가지정성능공인기관에서 공인받은 연료절감기술이 융합된 연료절감되는 혁신적인 다기능 블랙박스를 제품화에 성공

연료절감기 결합 블랙박스가 좋은 이유?
연료절감기 결합 블랙박스는 화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전방에는 HD, 후방에는 VGA 급의 적외선 촬영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일반 블랙박스는 어두운 밤에는 영상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료절감기 결합 블랙박스는 SONY EXMETRATARVIS 센서를 적용해서 희미한 빛에서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상태에서 최대 7일 동안 촬영하기 때문에 일반 블랙박스에서 전원 차단으로 인해 촬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절감기 결합 블랙박스는 장착하면 차량의 배터리에 번개와 형태의 펄스 파장이 발생되어 엔진의 점화력이 강화되고, 출력이 높아지면 엔진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승차감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장착하자마자 잘 느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연료절감기 결합 블랙박스, 기존의 블랙박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판매 중인 시중의 블랙박스는 상시 주차 모드 시에(주차 녹화) 블랙박스가 배터리의 전력 소모로 인해 1~2일 정도만 배터리가 방전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배터리 저전압 차단 방지 기능이 있지만 블랙

박스도 함께 작동이 정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절감기 결합 블랙박스 제품은 이러한 문제를 연료절감 및 그 동작방식 발명특허(제10-1172273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본 기술은 배터리 복원 재생을 하는데 복원 후에는 상시 주차에서 최대 7일 후에도 시동이 가능하고, 10시간 운행 누적 후부터 복원 전에도 3~6일 후에도 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차추돌방지, 차선이탈 방지, 앞차 출발 알림 등의 스마트한 기능과 연료절감 효과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연료절감기 결합 블랙박스의 연료절감 원리와 효과는?
차량의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면 엔진 점화력이 떨어지게 되고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연료를 20% 정도 더 소모해서 연료 소모가 과다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는 90~140개 정도의 센서와 컴퓨터들이 있는데 그 전력을 배터리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면 자동차의 전자 제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어 자동차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성능이 저하된 차량에 연료절감기 결합 블

랙박스를 장착하게 되면 차량 배터리에 번개와 형태의 펄스 파장이 발생되어서 배터리에 쌓여있는 황산염을 묽은 황산으로 환원시켜줍니다. 이때 차량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이 0.5~1v가 올라가 엔진의 점화면에서 1000~2000v의 점화력이 강화되면서 같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고도 엔진 출력이 높아, 연료가 절감되고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승차감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연료 절감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기가스량이 줄어 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엔진출력 향상
엔진출력 1,000~3,000V 향상

배터리 재생
배터리 재생 복원 후 상시 주차시 최대 7일후 시동 복원 전에도 3~6일 사용

연료절감
시속 30km - 3% 절감
시속 80km - 10~13% 절감
100~110km - 15~35%(트립)

배터리 수명 연장
라이트 밝기 향상

배기가스 감소
엔진 소음 감소

승차감 향상
앞차 추돌 방지

앞차 출발 알림
GOGO 기능



2016년 대한민국 우수기업 - 에너지 부분 대상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에너지 발전 혁신공로 대상”

3개월 사용 후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

선/착/순 100명 설치비 무료

연료절감기 결합 블랙박스 VG700VA-SF, VG800V-SF
ADAS지능형 운전자보조시스템 / Exmor R 센서 / 전방 Real HD / 후방 Real HD / Format Free 음성안내, 교통안전 도우미 / 전용 PC Viewer / Dual Save / 음성녹음기능 / 외장 GPS지원
제품 구입 시 스포카인내세발주의 SF모델 (연료절감기 결합형 모델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문의 070-7433-1525

2016년 하반기 히트상품 HIT 스프링동아